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n Analysis of the Effect on Childbirth Will of Married Wome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 사 이 소 영*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Instructor : Lee, So-Young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해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According to the research taken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ertility rate of a Korean fertile female is 1.17. This figure is the lowest in the world, and the reduction in the fertility rate over the last 30 years was the biggest in the world. It can be seen as a warning alarm about the effects of a low birth rate and a silver society. Assuming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involved in this phenomenon,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attitude towards children, attitude towards nourishing children, attitude towards sex roles and the harmony between the jobs and families of married females, and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Final 581 copies of the survey questionnaire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SPS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hree main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ly, the value variables, such as sex-role attitudes and the preference for work or home, affect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one's valu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se variables and the willingness to give birth. Secondly, both working moms and housewives have a strong tendency to give a birth if they are supported on child rearing. Finally, the employment of the married women itself can be a variable that can affect childbirth. In other words, the working hours affect employed married women so as sex-role attitudes, the preference between work and home, ideal number

* 주저자, 교신저자 : 이소영 (youngdewlee@hanmail.net)

of children, and the income to housewives. Also, even in whole married women, the employment itself can be a major factor of the willingness to have a baby. Therefore, unemployed married women have more of a tendency to have children than employed married women.

Key Words : 저출산(low fertility), 출산율(fertility rate), 성역할(sex roles), 일·가정 지지(the support for job and family)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에 이르러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이며,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우리 사회의 인구고령화가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관심이 시급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생산인구를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 투입해야 할 노동인력이 감소하고,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집단 혹은 단체 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며, 양적 문제 보다는 질적 문제로의 관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성장의 문제보다는 복지의 문제의 초점이 이동하는 분위기와 맥을 함께 한다. 따라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은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기 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상호복합적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의지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사회전반에 야기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출산의지와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들의 자녀출산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면서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로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과 사적 영역 내에서 여성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야 하는 불평등한 성역할 관계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논의가 많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저출산문제가 제기한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자녀출산의지와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커다란 영향을 준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교육과 자아실현욕구의 증가로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였으나 육아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보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은 개별 가정에 있다는데 있다(윤소영, 2005).

출산율에 관한 이론은 통상적으로 연구자의 전공이나 해당 사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모형을 채택하여 시행하게 된다. 출산율에 관한 많은 이론들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관련이론,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차별출산력이론, 여성의 취업관련이론적 접근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관련이론

소득에 따른 출산력을 보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이론과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상반된 견해와 소득수준은 출산력과 관계가 없다는 이론이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어 소득에 따른 출산력은 시대별,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향상이 출산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양(+)의 상관관계 이론에 대한 최초의 주장은 말서스(Malthus)에 의해서이다. 즉, 소득이 증가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은 금욕을 적게 하기 때문에 출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2).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킨 베커(Becker, 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소비자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출산율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증가는 내구소비재의 일종인 자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 Okun, 1949)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양(量)을 증가시키려는 의욕보다는 질(質)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양연선, 1999).

즉 소득의 증가가 자녀의 질적 향상으로 귀결될 경우 자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혼부인의 소득증대가 발생되면 대체효과(기회비용 증대와 관련된 출산율 저하)가 소득효과(자녀를 재화로 보아 기혼부인의 소득증대는 출산율을 상승)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쿠즈네츠(Kuznets, 1966)는 "유럽에서는 근대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출산율은 개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증가하나, 다음단계에서는 하강추세를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김한곤, 1993).

한편 Mincer에 의하면, 기혼부인의 소득은 소득효과와 대체 효과 모두를 갖는 반면 남편의 소득은 소득효과만을 갖기 때문에 '기혼부인의 소득증대는 출산율 저하'를 가져오고, '남편의 소득증대는 출산율 상승'을 가져온다고 하였다(김승권 외, 2002).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출산력의 변화를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동기는 경제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규범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이 입장에서는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부모들은 결정에 앞서 자녀출산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효용과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효용 등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가치를 따진다고 보고, 경제적 효용이 비효용보다 높으면 자녀를 갖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출산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갖는데 대한 경제적 가치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라이벤스타인(Leibenstein, 1974)이다. 라이벤스타인은 경제발전이 최저 노력점에 이르기까지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은 크게 증대되는 반면에 비용은 낮아져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대가 자녀에 대한 효용은 감소시키고 비용은 증대시켜 소자녀 규범을 형성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였다(김한곤, 1993).

뮬러(Muller, 1972), 히어(Heer, 1966) 등도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가 되지만 근대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효용은 감소되는 반면, 비용은 증가하게 되어 소자녀관 형성의 동기가 이룩된다고 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김승권, 2003; 김정이, 2004).

또한 이스터린(Easterlin, 1969)은 현재 경제학적 모형 중에서 가장 일반적모형을 개발했다. 그는 출산력을 소득, 기호,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특히 기호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자녀의 출산을 수요와 공급 그리고 비용(가격)의 함수로 보았다. 이 때 수요는 자녀의 가치 및 효용성이 되며, 이러한 효용성의 개념에서는 경제적인 효용성(노후 봉양, 노동력 제공)과 심리적인 효용성(안정감과 만족감)이 포함된다. 공급은 그 한계가 가임력과 자연출산력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수준을 유지할 것인가는 수요와 그 수요충족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자녀를 두는 것이 가격이나 시간 등에서 전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생산할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소득과 시간의 제약, 자녀에게 드는 비용,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 등 많은 제약 때문에 자녀를 통해 얻는 만족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문창진, 1987). 예를 들어 출산억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출산을 하는 비용보다 높게 된다면 공급은 과잉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권태환 · 김두섭, 2002).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있어 서구 선진국과 다른 조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높은 사교육비, 사교육의 필요성, 이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희망 자녀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정영숙, 1997).

3. 차별출산력이론

차별출산율(differential fertility)이란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출산율의 차이를 말한다. 이는 사회의 규범과 기호의 형성을 통한 행동 및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회 규제적인 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의 차이, 도시와 농촌 거주자 사이의 차이, 개인의 종교적인 배경에 의한 차이 등이다. 이 때 어떤 사회적 배경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출산력의 차이는 그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변준한, 2003). 즉 차별출산율에 따르면 출생은 전적으로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콜드웰(Caldwell, 1980)은 대중교육이 결과적으로는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가족관계와 가족경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노후보장을 자식들에 의존하는 가족중심적인 노후보장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가족중심의 노후보장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부모에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신을 가져다주었던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그렇지 않은 점들을 들 수 있다(김정이, 2004).

슐츠(Schultz)는 출산율의 저하를 유아사망률의 저하에 기인한다고 보았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자녀에 대한 취향과 물질재화사이의 선호도의 차이를 일으켜 출산력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김승권 외, 2002).

따라서 차별출산력의 핵심은 주어진 배경에 따라서 만약 출산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배경변수와 출산력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그 배경변수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시킨 후에 연구자가 특별히 선정한 배경변수가 출산력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4. 여성의 취업관련 이론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는 역할양립이론, 경제적 종속이론, 여성자율성이론(문창진, 1987)이 있다. 역할양립이론(role compatibility theory)은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을 감소시키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농경 사회에서 여성의 생산 활동과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취업은 자녀양육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출산율과 관계있는 것은 여성의 취업 자체가 아니라 직종이나 근무환경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조건이 출산휴가, 근무시간의 유연성, 질 높은 보육 시설의 보장 등으로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이 취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취업률이 함께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취업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출산율과 취업률이 모두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Gauthier, 1996; Brewstin and Rindfuss, 2000).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조건, 보육시설 환경 등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원만하게 해 나가기에는 부적절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이인숙, 2005).

경제적 종속이론(Economic Dependency Theory)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에 안전감을 느끼고 자녀의 성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실증연구들은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으며(Kogel, 2004), 20세기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활동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출산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취업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국가별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낮았다는 것이다(김한곤, 1993).

여성자율성이론(Female Autonomy Theory)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출산 선호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여성의 자율성이 제한된 경우에는 남성의 출산 선호출산율이 그대로 반영되어 높은 출산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성들은 근본적으로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자율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다. 즉, 남성주도의 가정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율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여성주도의 가정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독립변수(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는 가치관(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 일·가정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치관(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 일·가정 만족도)은 독립변수(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와 자녀출산의지

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매개하는가?

2. 조사도구

자녀출산의지에 대한 측정도구는 현재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없으므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수는 21문항이며 각 구성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및 결혼관련 변수 8문항, 성역할태도 6문항, 일·가정 선호도 4문항, 일·가정 만족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과 가정의 선호도를 묻는 문항 4문항과 일과 가정의 만족도 측면을 일과 가정 중에 어디서 찾는가 하는 문항 3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각각을 일·가정 선호도와 일·가정 만족도라고 규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척도는 7점 Likert 척도로 하여 "일을 적극 지지"의 1점에서 "가정을 적극 지지"는 7점으로 하여 "일·가정의 중간 지지"는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일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며 4점에 가까우면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저출산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독립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결혼관련 변수, 일관련 변수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다. 매개변수인 가치관으로는 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 일·가정 만족도 변수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고, 종속변수는 자녀출산의지로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예비조사는 2006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과 분석 후 일부 수정 보완작업을 거쳐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723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부실기재 및 누락된 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과 자녀수를 제한시켜 나이는 40세 이하로, 자녀수는 2명 이하인 사람만을 한정시켜 자료로 삼고 총 30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을 보았고 이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5.4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미만 졸업 여성이 103명(33.3%), 4년제 대학 이상이 206명(66.7%)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여성이 두 배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가계소득은 5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관련변수로는 결혼지속기간,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결혼후 자녀출산시기로 보았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8년으로 나타났다. 2명의 자녀가 가장 많았고,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육아조력자 유무와 결혼 후 자녀출산시기에 대한 응답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조력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07명(38.0%), 육아조력자가 없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175명(62.0%)이었다. 결혼 후 자녀출산시기에 대한 응답은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1)]

(N=309)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1)]				
변 인			구분	대상자수(명)	빈도(%)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 령 (평균: 35.4세)		30세 이하	33	10.7
			31~35세	115	37.2
			36~40세	161	52.1
	교육수준		4년제 대학 미만	103	33.3
			4년제 대학 이상	206	66.7
	가계소득 (월평균: 541만원)		250만원 미만	137	47.9
			250~500만원 미만	117	40.9
			500만원 이상	55	17.7
결혼 관련 변수	결혼지속기간 (평균: 8년)		6년 미만	66	21.4
			6~12년 미만	182	58.9
			12년 이상	61	19.7
	자녀수 (평균: 1.47명)		0명	27	8.7
			1명	111	35.9
			2명	171	55.3
	이상적인 자녀수 (평균: 2.23명)		0명	1	0.3
			1명	26	8.4
			2명	182	58.9
			3명	76	24.6
			4명	24	7.8
	육아조력자[2)]		유	107	38.0
			무	175	62.0
	결혼후 자녀출산시기[2)] (평균: 1.4년)		1년 이하	171	60.6
			1년 초과	111	39.4
일관련변수	취업여부		유	158	51.3
			무	150	48.7
	취업 (N=158)	직업	전문직	83	52.5
			비전문직	75	47.5
		주당 근무시간 (평균: 39시간)	40시간 이하	86	55.6
			40시간 초과	72	44.4
종속 변수	자녀출산의지		있다	80	25.9
			없다	229	74.1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수준

가치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성역할태도	3.36	.69
일·가정 선호도	3.38	1.12
일·가정 만족도	3.59	1.48

주: 1) 결측자 제외(이하 표 동일)
2) 자녀가 없는 경우 제외(이하 표 동일)

1년 이하가 171명(60.6%), 결혼후 1년이 지나서 출산한 경우는 111명(39.4%)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 중 취업주부는 158명(51.3%), 전업주부는 150명(48.7%)이었다. 또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직업과 근무시간을 조사하였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인 경우가 83명(52.5%), 비전문직인 경우 75명(47.5%)이었다.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이하가 86명(55.6%), 40시간 초과가 72명(44.4%)으로 나타났다. 자녀출산의지를 조사하기 위한 향후 자녀를 출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낳겠다가 80명(25.9%), 낳지 않겠다가 229명(74.1%)으로 대부분 낳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사하였다. 성역할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평균이 3.3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는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평균 3.3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평등한 태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일·가정 선호도 수준과 일·가정 만족도 수준을 7점척도로 측정했을 때 평균이 각각 3.38점, 3.59점으로 상대적으로 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자들의 성역할태도는 전통적이기보다는 평등한 성역할태도에 가까웠으며, 일과 가정 중에 일을 더 선호하고 일로부터 만족감을 더 얻는다고 나타났다.

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치관 결정요인

변 인		성역할 태도 (N=280)		일·가정 선호도 (N=280)		일·가정 만족도 (N=281)	
		B	베타	B	베타	B	베타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연령	-.001	-.006	.031	.085	-.092*	-.187
	교육수준	.000	.000	.046	.039	-.038	-.024
	가계소득	8.13E-006	.004	.000	-.058	.000	.075
결혼 관련 변수	결혼지속기간	-.013	-.068	-.033	-.112	.044	.109
	자녀수	.177*	.162	-.336**	-.192	.239	.101
	이상적인 자녀수	-.054	-.057	-.069	-.046	.109	.054
	육아조력자	.095	.067	.215	.094	-.338	-.110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195*	-.138	-.059	-.026	.067	.022
일 관련 변수	취업여부	.120	.086	.371*	.166	-.816***	-.270
상수		3.540		2.919		6.372	
R^2		.054		.134		.160	
F		1.697#		4.648***		5.754***	

* p<.05, ** p<.01, *** p<.001

계,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인구통계학적변수와 결혼관련변수, 그리고 일관련변수를 넣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여부에 따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 전체와 취업주부, 전업주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일관련변수로 직업과 근무시간을 추가로 넣고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성역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녀수, 결혼후 자녀출산시기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후 자녀출산시기가 짧을수록 성역할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기보다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평등적일때 가사노동분담이나 육아분담이 잘 되고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많은 연구에서 성역할태도가 높다는 것은 남편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 취업주부의 가치관 결정요인

변 인		성역할 태도 (N=128)		일·가정 선호도 (N=128)		일·가정 만족도 (N=129)	
		B	베타	B	베타	B	베타
인구통계학적변수	연령	.017	.076	.012	.035	-.069	-.166
	교육수준	-.107	-.152	.180	.168	.162	.126
	가계소득	2.38E-005	.013	3.19E-005	.011	.000	-.046
결혼관련변수	결혼지속기간	-.017	-.085	.034	.110	-.050	-.137
	자녀수	-.001	-.001	-.553**	-.348	.267	.140
	이상적인 자녀수	.035	.036	.221	.147	.231	.127
	육아조력자	.088	.057	.193	.083	.396	.141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077	-.055	-.037	-.017	-.501*	-.193
일관련변수	직업 (전문직)	.110	.078	.071	.033	-.993***	-.385
	근무시간	-.018	-.013	.464*	.215	.225	.087
상수		3.494		1.870		5.042	
R^2		.029		.144		.287	
F		.355		1.961*		4.754***	

* p<.05, ** p<.01, *** p<.001

둘째, 일·가정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녀수,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했을 때 가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가정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 일보다는 가정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주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성역할태도를 설명하는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일·가정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녀수, 근무시간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일보다 가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근무시간이 짧을 수록 일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가정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직업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결혼후 자녀출산시기가 짧을수록, 직업에 있어서는 전문직이 아닐때 일보다는 가정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성역할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녀수, 결혼후 자녀출산시기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후 자녀출산시기가 짧을수록 성역할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기보다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가정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결혼지속기간으로 나타났다. 즉

〈표 4〉 전업주부의 가치관 결정요인

변 인		성역할 태도 (N=146)		일·가정 선호도 (N=146)		일·가정 만족도 (N=146)	
		B	베타	B	베타	B	베타
인구 통계 학적 변수	연령	-.006	-.025	.041	.115	-.139*	-.277
	교육수준	.107	.134	-.142	-.112	.035	.020
	가계소득	-7E-005	-.032	.000	-.048	.001	.103
결혼 관련 변수	결혼지속기간	-.011	-.065	-.077*	-.278	.131*	.342
	자녀수	.310**	.270	-.276	-.151	.240	.094
	이상적인 자녀수	-.086	-.096	-.216	-.150	.112	.056
	육아조력자	.107	.055	.401	.130	-1.303***	-.304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311*	-.218	-.127	-.056	.645**	.204
상수		3.137		4.278		6.100	
R^2		.124		.177		.247	
F		2.427*		3.674**		5.628***	

* p<.05, ** p<.01, *** p<.001

결혼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일보다는 가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가정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 결혼지속기간, 육아조력자, 결혼후 자녀출산시기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육아조력자가 없을 때, 결혼후 자녀출산시기가 길수록 일보다는 가정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먼저 독립변수인 인구통계학적변수와 결혼관련변수, 그리고 일관련변수을 넣고 분석모델을 구성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가치관변수로 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 일·가정 만족도를 넣고 분석모델을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전체와, 취업주부, 전업주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취업주부인 경우에는 일관련 변인으로 직업과 근무시간을 추가로 넣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표 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를 입력 방식으로 투입한 결과 모델 I에서 유의미한 변인은 연령,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로 p<.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인구통계학적변수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았으며, 결혼관련변수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았다. 이들 요인이 자녀출산의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예측값은 81.1%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와 가치관변수(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 일·가정 만족도)를 입력 방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모델 II에서와 같이 연령,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취업여부는 p<.05 수준에서, 가치관변수 중 일·가정 선호도는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요인이 자녀출산의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예측값은 83.6%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자녀출산의지 결정요인

(N=282)

종속변인		자녀출산의지	있다=1 없다=0
설명변인		모델 I	모델II
		B(S.E)	B(S.E)
	상수	7.078(2.917)*	8.496(3.230)**
인구통계학적변수	연령	-.190(.085)*	-.208(.087)*
	교육수준 (2년제 대학 졸)	-.177(.380)	-.150(.383)
	가계소득	.000(.000)	.000(.000)
	결혼지속기간	-.118(.080)	-.090(.081)
결혼관련변수	자녀수	-.745(.301)*	-.639(.311)*
	이상적인 자녀수	.645(.251)*	.656(.255)*
	육아조력자유	-.487(.687)	-.509(.705)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396(.415)	-.414(.431)
일관련변수	취업유	-.895(.354)	-.773(.369)*
가치관변수	성역할태도		.035(.258)
	일·가정 선호도		.472(.134)***
	일·가정 만족도		-.020(.127)
	예측성공률	81.1%	83.6%
	-2LL	229.426	226.377
	모형 x^2	53.911***	56.961***
	df	9	12

# p<.1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취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를 입력 방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모델 I 에서 결혼관련변수로는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가 일관련변수로는 근무 시간이 자녀출산의지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녀수는 $p<.05$ 수준에서, 이상적인 자녀수는 $p<.01$ 수준에서, 육아조력자는 $p<.05$, 수준에서, 근무 시간은 $p<.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이 자녀출산의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예측값은 78.0%이었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조력자가 있을 때,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일 때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와 가치관변수를 입력 방식으로 넣고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모델 II 에서와 같이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가치관변수로는 일·가정 선호도가 자녀출산의지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는 $p<.05$ 수준에서, 육아조력자는 $p<.1$ 수준에서, 일·가정 선호도는 $p<.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이 자녀출산의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예측값은 78.0%로 모델 I, II의 예측값은 변화가 없었다. 다만 취업주부들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근무시간,

〈표 6〉 취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 결정요인

(N=133)

종속변인		자녀출산 의지	있다=1 없다=0
설명변인		모델 I	모델II
		B(S.E)	B(S.E)
상수		3.694(3.359)	3.258(3.820)
인구통계학적변수	연령	-.127(.093)	-.124(.096)
	교육수준 (2년제 졸업)	.119(.510)	.106(.517)
	가계소득	.000(.001)	.000(.001)
	결혼지속기간	-.074(.081)	-.067(.082)
결혼관련변수	자녀수	-.812(.383)*	-.797(.394)*
	이상적인 자녀수	.889(.337)**	.341(.341)*
	육아조력자유	.688(.348)*	.690(.352)#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543(.546)	-.565(.563)
일관련변수	직업(전문직)	.168(.458)	.180(.501)
	근무시간(40시간이하)	-.523(.308)#	-.486(.313)
가치관변수	성역할태도		.275(.291)
	일·가정 선호도		.373(.166)*
	일·가정 만족도		.031(.187)
예측성공률		78.0%	78.0%
-2LL		149.851	148.618
모형 x^2		34.809***	36.042***
df		10	13

# p<.10, * p<.05, ** p<.01, *** p<.001

〈표 7〉 전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 결정요인

(N=149)

종속변인		자녀출산 의지	있다=1 없다=0
설명변인		모델 I	모델II
		B(S.E)	B(S.E)
상수		6.544(4.925)	13.544(6.386)*
인구통계학적변수	연령	-.314(.138)*	-.376(.156)*
	교육수준 (2년제 졸업)	.376(.672)	.366(.707)
	가계소득	-.004(.002)#	-.004(.002)#
	결혼지속기간	-.043(.131)	-.014(.144)
결혼관련변수	자녀수	-.400(.597)	.399(.683)
	이상적인 자녀수	.663(.418)	.826(.474)#
	육아조력자유	2.862(1.743)	3.203(1.772)#
	결혼후 자녀출산시기	.712(.786)	.770(.806)
가치관변수	성역할태도		-1.196(.672)#
	일·가정 선호도		.435(.241)#
	일·가정 만족도		.048(.257)
예측성공률		89.1%	92.7%
-2LL		78.978	71.664
모형 x^2		38.394***	45.708***
df		8	11

# p<.1, * p<.05, ** p<.01, *** p<.001

일·가정 선호도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기혼여성전체와 비교 했을 때 육아조력자와 근무시간이 취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전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를 입력 방식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모델 I에서 연령과 소득이 자녀출산의지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은 $p<.05$ 수준에서, 가계소득은 $p<.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요인이 자녀출산의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예측값은 89.1%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가치관변수를 입력 방식으로 로지스틱한 결과 모델 II에서 연령, 소득,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가 자녀출산의지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은 $p<.05$ 수준에서, 소득,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성역할태도는 $p<.1$수준에서 일·가정 선호도는 $p<.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조력자가 있을 때,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정을 지지할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은 것은 앞의 선행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이론과 일치한다. 이들 요인이 자녀출산의지를 결정하는데 대한 예측값은 92.7%이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인구통계학적변수, 결혼관련변수, 일관련변수, 가치관변수는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자녀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 결혼후 자녀출산시기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후 자녀출산시기가 짧을수록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기보다는 평등적인 성역할태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성역할태도를 설명하는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와 결혼후 자녀출산시기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가정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일·가정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 근무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결혼지속기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가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을 하지 않은 주부가 일보다는 가정으로부터 더 만족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정 선호도와 일·가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비교해 보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을 선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으로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들의 가치관영역에 영향하는 중요 변수는 연령과 자녀수, 취업여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일과 가정 중에 일로부터 만족을 얻

지만, 현실상 취업여성들에게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취업여부, 일·가정 선호도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근무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소득, 이상적인 자녀수, 육아조력자, 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이상적인 자녀수가 많을수록, 육아조력자가 있을 때,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일을 지지할수록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자녀출산의지에 가치관변수인 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가치관은 이들 변수와 자녀출산의지에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역할태도가 더욱 서구선진국에서처럼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고 일과 가정에 편중됨 없이 적절히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자녀출산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가치관이라는 변수는 쉽게 변화하기 보다는 장기간의 개인과 사회의 노력과 개선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성역할태도나 자녀에 대한 가치와 같은 가치관 변화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회정책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육아조력자가 있을 시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에게 있어 육아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자녀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은 가족친화적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조사에 따르면 친인척의 비공식지원망의 수요충족율은 27.3%로 나타났고, 2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약 30%이며, 가정보육사의 경우는 14.4%에 불과했다.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노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공식 가족지원망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익 면에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보육 시설과 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되는 바이며, 조부모와 친척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차이가 있었다. 즉 취업주부에게는 근무시간이 전업주부에게는 성역할태도, 일·가정 선호도, 이상적인 자녀수, 소득이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전체로 보아도 취업여부 자체가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쳐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이 취업을 한 여성보다 자녀출산을 하겠다는 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변수들을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한 경제적 논리에 입각

하여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직종이나 근무환경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나 여성의 노후보장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나아가 여성의 자율성 확립과 같은 여성존중의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이로 인한 소득과 경력 또 자아실현과 같은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이들의 단절을 지양하고 결혼과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회풍토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당면 인구문제 중 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저출산의 요인을 분명히 규명했다는 점과 특히 여성취업과 관련하여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제반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앞으로의 출산장려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이어야 하며, 특히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참여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초혼연령의 상승이나 미혼여성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미혼남녀의 결혼관을 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함'에 대한 질문에 미혼남성이 29.4%, 미혼여성이 12.8%만이 대답하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충분한 미혼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왜 미혼여성이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출산을 기피하는지에 대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재고와 함께 이들로 하여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도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강우란(2006). 경영의 새 화두 : 일과 생활의 균형. CEO Information 558호. 삼성경제연구소.
2) 경향신문(2006). 영세기업 근로자 산전후 휴가저조. 2006년 9월 30일자.
3) 구명숙, 홍상욱(200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에 따른 육아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4(4), 532.
4) 김명중(2006). 일본 :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 국제노동동향.
5) 김승권, 최병호, 정경희, 이삼식, 박덕규, 박인화, 장지연(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정책보고서 2002-4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2003).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학회 13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움 발표자료.
7) 김정이(2004). 출산율 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김한곤(1993).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교 출판부.
9) 권태환, 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 출판부.
10) 문창진(1987). 여성경제활동과 출산선호. 한국인구학회지 10(1), 3-25.

11) 변준한(2003). 기혼유배우 여성의 자녀수 결정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2) 양연선(1999).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최적소비선.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여성가족부(2006).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4)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60-161.
15)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 이인숙(2005).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8-72.
17) 정영숙(1997). 일상생활에서의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6(2), 60-65.
18) 최경수(2006). 저출산 원인과 정부의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9) 최숙희(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 통계청(2006). 2006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OECD 주요국 저출산 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
23) Becker, G. S.(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Universities National Bureau Committee for Economic Research.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4) Kogel T.(2004). Did the Associ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Really Change its sig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
25) Leibenstein, H.(1974).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26)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27) 노동부 http://www.molab.go.kr
28)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30) 우리아이닷컴 http://www.urii.com
31) 통계청 http://www.nso.go.kr
32)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33)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 접 수 일 : 2008년 1월 13일
■ 심 사 일 : 2008년 1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19일